

1. 고려

고려시대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서화사를 쓸 수 있을 만큼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종교적으로 불교 중심 사회였던 탓에 유교 중심의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억불정책에 따른 서화 관련 불교유물 및 자료 유실로 현존하는 자료는 금석문(金石文)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토대로 고려시대의 서풍을 살펴보면, 전기에 해당하는 태조에서 예종 때까지의 약 200년간은 당과 북송(北宋)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구양순(歐陽詢) 서풍이 주류를 형성하고 안진경(顔眞卿)과 유공권(柳公權)의 서풍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가 고려시대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와 원의 문화교류 역할을 담당했던 연경(燕京)의 만권당(萬卷堂)을¹⁾ 통하여 이암(李崑 : 1297~1364)이 조맹부(趙孟頫) 서체를 들여오면서 고려 말에는 송설체(松雪體)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한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따르면 신품사현(神品四賢)으로 신라의 김생(金生), 고려 초기의 유신(柳伸 : ?~1104), 중엽의 탄연(坦然)·최우(崔瑀)를 꼽고 있다. 또한 『필원잡기(筆苑雜記)』에는 신품사현을 평하여 “아동필법(我東筆法) 이규보상평론이(李奎報嘗評論以) 최충헌위신품제일(崔忠獻爲神品第一) 탄연제이(坦然第二) 유신제삼(柳伸第三) 아부권귀(阿附權貴) 비공논야(非公論也)”라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집권자였던 최충헌이 신품 제일일 수 없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송광사 「불일보조국사탑비(佛日普照國師塔碑)」(1091년 辛未建 禮部尙書 金君綏撰)는 유신의 대표작이다. 유신은 초명이 인(仁)으로 본래 중인이었으나 어려서 문과에 급제하여 기거사인(起居舍人)을 거쳐 청주목사로 선치(善治)하였다. 1087년(선종 4) 예빈소경(禮賓少卿)으로 고주사(告奏使)가 되어 요나라에 다녀왔고, 1093년 공부시랑으로 사은부사가 되어 송나라에 가서 책부원구(冊府元龜)를 가지고 귀국했다. 1101년(숙종 6) 예부상서를 거쳐 이듬해 이부상서를 지냈으며, 1103년 검교사공(檢校司空)을 거쳐 상서우복야정당문학(尙書右僕射政堂文學)으로 승진하였다. 숙종 초에 조정에서 거론되었던 남경천도(南京遷都)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해서·행서·초서를 두루 잘 써서 해동의 네번째 명필로 꼽혔는데 안평대군은 그의 필해당집고첩(匪懈堂集古帖)에 “유신서(柳伸書) 심유법도(深有法度)”라 평하였다.

「수선사비(修禪寺碑)」는 고려 명종 때 보현사 주지를 지낸 석기준(釋機俊)의 글씨로 1172년(명종 2) 지리산 단속사의 「대감국사탑비」를 쓴 뒤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선사는 송광사의 옛 이름으로 고려 선종 때에 조계수선사라 하였다가 후에 송광사로 개칭하였다.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있어 왕우군(王右軍)의 행서(行書)를 법(法)한 자(者)는 석탄연과 석기준을 추거(推舉)할 수 있다.”고 하여 석기준이 행서에 특히 능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명대사전』에 「순천 수성비(守城碑)」를 썼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송광사의 「진각국사원소탑비(眞覺國師圓炤塔碑)」와 「혜감국사광조탑비(慧鑑國師廣照塔碑)」는 각각 1235년(고종 22)과 1319년(충숙왕 6)에 건립된 것인데 이규보와 이제현의 『동국』

1) 고려 忠烈王과 元의 齊國公主 사이에 태어난 忠宣王이 학문과 예술에 집념하기 위해 忠肅王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 燕京 자신의 집에 만권당을 세우고 당시의 巨儒였던 閻復, 姚燾, 趙孟頫, 虞集 등과 고려의 李齊賢, 安裕, 李崑 등을 초빙하여 古典과 性理學을 연구하였다.

상국집』과 益齋藁』에 실려 있으나 누구의 글씨인지는 알 수가 없다. 고려 말 승평 부사로 치적이 많은 주열(朱悅 : ?~1287)은 『고려사』에 “문장부담(文章富贍) 필법역기(筆法亦奇)”라는 기록이 있어 그가 문장과 글씨에 능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성품이 후덕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었다고 한다. 승평부사를 거쳐 1280년 판도판서가 되고 지도첨의부사를 지냈다.